

서호인의 '소설처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는 '계관시인'이라는 게 있다. 미국에서는 매해 계관시인이 새롭게 지정되며 특별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시가 국가의 중요 행사에 쓰이곤 한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한 시대를 대표한 시인에게 월계관을 씌워 존경을 표하던 전통이 지금까지 계승된 셈이다.

시인에게 월계관은 특별한 지위나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언어를 대변하고 세계의 정서를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권한에 가까울 것이다. 온갖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 각각의 목소리가 모두 다른 소리를 내는 작금이기에 계관시인의 존재와 역할은 그마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시가 2020년의 혼란을 함축하겠는가. 그 어떤 시인이 2021년의 군상을 예감하겠는가. 오늘날의 시인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아니, 하지 않는다.

무지한 혼란과 몽매한 군상 사이에서 가까스로 탄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전통의 깃드머리를 조금이나마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취임식과 달리 인과 없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었던 취임식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청년 계관시인 어벤다 고먼이 쓰고 낭독한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The Hill We Climb)에서 그 전통의 일단을 본 것이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완성되었다는 이 시는 어렵지 않은 단어와 리드미컬한 운율로 지금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적절하고 절절하게 전달했다. 취임식 이후 젊은 시인은 일약 유명인이 되었고, 그날

서러운 역사를 읽다 -김연수 '일곱 해의 마지막'

의 패션 소품은 일거에 품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으로 오래 남을 것은 아래와 같은 구절이다. "우리에게 빛을 바라보고,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빛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계관시인이라 부를 수 있는 시인이 몇 있었다. 윤동주의 '서시'는 우리가 간직한 영원한 청년의 표상이 되었다. 김수영의 '풀'은 근대사의 매혹찬 광풍 속에서도 꿋꿋했던 민중을 기리는 시가 되었다. 한용운, 이상, 기형도, 최승자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백석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기행'이 본명인 시인은 그의 본명대로 해방 전 여러 곳에 거쳐하다 해방 후 고향인 평안도 정주에 머문다. 월북이 아닌 '귀북' 시인이 된 백석의 작품은 바로 그 이유로 오랜 기간 금서가 되었고, 1987년이 되어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물론 지금 백석은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되었으며, '나와 나타나와 당나귀'를 모르는 시 독자는 아마도 간첩일 것이다.

간첩이라나..... 분단을 상징하는 음습한 단어가 일종의 속담처럼 널리 쓰이게 된 사회에서 우리는 신다. 우리는 분단 때문에 오랫동안 백석의 시를 읽지 못했거나 북한의 독자는 백석의 시를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백석은 해방과 전쟁 이후에도 노년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나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오히려 모종의 이유로 시를 쓰지 못하였고, 집단 농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국수' '모다불' '여유난골죽' '월 바람벽

이 있어'와 같은 아름다운 시를 남겼던 백석의 생애 후반기 대부분은 시인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시절 백석의 삶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연수 작가의 장편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 시기의 백석을 다룬다. '기행'으로 지칭되는 시인은 한국어로 쓰는 계관시인이 될 수 없었다. 남쪽에서는 없는 사람이었고, 북쪽에서는 문체적 시인이 되었다. 체제가 결정하고 국가가 감시하는 창작 여건에 백석은 적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천양시'를 쓸 수 없었다. 천양시를 쓰는 순간 그는 그가 생각하는 시인이 아니게 되었다.

백석은 자신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그의 아름다운 시에서 썼던 것처럼 백석은 '세상을 더러워서 버리는' 듯하다. 아니 그런 세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저 삶을 이어 갔던 것일 지도. 그저 그는 시를 쓰고 싶었고, 시를 보여 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시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에 비해 이 세계는 작고 초라해 보인다. 더럽고 유치하게 느껴진다.

시는 그런 세상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애써 외면한다. 손을 뺀어 개입하는 동시에 외따로 떨어져 옆에 앉는다. 어쨌든 시를 읽는 이에게는 '빛을 바라보고 빛이 될 용기'가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 밤 한 줌의 용기를 얻기 위해 백석을 읽어야겠다. '몽둥발이(떨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뭉뚱이만 남은 물건)가 된 서러운 역사'를 읽는 마음으로.

의료칼럼



고영춘  
광주기독병원 호흡기내과  
진료과장

올 겨울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해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철 추위는 신체 리듬을 깨기 쉽다. 추위가 계속되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경우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안구건조증이나 피부건조증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추위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게 되면 근육과 신경이 위축돼 낙상 등의 사고도 많아지고, 더불어 불면증이나 우울증·저체온증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겨울철에 지켜야 할 건강 관리법은 첫째로 외출 후 귀까지 손 씻기와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하기다.

둘째는 체온 관리로, 적절한 체온 유지를 위해 외출을 차단하고 따뜻한게 입으며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에 췌는 수건이나 화초, 수족관 등을 놓거나 가습기를 사용함으로써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돕는다. 건물 내에서는 적당한 난방과 함께 환기를 자

겨울철 건강 관리, 기본부터 지켜라

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를 따뜻하게 하며, 보온을 위해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영양이다. 밤낮이 바뀌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새벽에 잠이 드는 경우 목감기가 자주 걸린다.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면역 증진에 유익하다. 밝은 빛은 수면 유도에 방해가 되므로 과감하게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는 것이 좋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찬 음식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한다.

넷째, 겨울에는 조금 추위로 자주 환기한다. 실내 바이러스 입자가 많으면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하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충분히 물을 섭취한다. 실내 습도를 높이면 바이러스가 담긴 공기 중 비말이 수분을 흡수해 무거워진다. 습도가 낮을 때보다 바닥에 빨리 떨어져 사람들이 바이러스 입자를 흡입할 위험이 줄어든다. 공기 중 수증기량이 충분하면 코안 점막이 축축해져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다. 이 밖에 안구건조증의 경우 생활 습관만 조절해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 실내 온도 18도·습도 60% 정도를 유지하며, 업무 중간 눈을 깜박거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부건조증은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피부의 외부에서 보호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이 약해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다. 피부 내 수분이 10% 이하로 줄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과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피

부건조증은 안구건조증과 마찬가지로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피부 자극을 삼가함과 동시에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봄의 75% 정도에 불과해 햇빛을 쬐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세로토닌 분비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우울증은 우선도 하나의 발생 원인이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기분 전환을 위해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원인으로 불면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5분가량 낮잠을 자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 동안 햇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카페인 함유된 커피나 녹차는 가급적 많이 섭취하지 않으며, 매운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도 금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추운 날씨에는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이 나타나면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고 마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연령이 높거나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 한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당한 음식 섭취, 위생 관리의 생활화 등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건강 관리의 기본을 준수해야 한다.

귀농·귀촌의 걸림돌

익 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농어업 소득이 수억 원 되는 농어민은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공익 직불금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이에게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정해 놓아 상당수 연금 세대 가운데 이를 초과하는 일부 귀농·귀어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지금 기준을 3700만 원으로 규정한 데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지만 공익 직불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출출하게 만든 제도가 오히려 귀농·귀촌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은퇴자들은 재직 때와 달리 은퇴 후 연금 등 농외소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준치 3700만 원 언저리를 초과한 경우가 많다고 볼 때 공익 직불금 보조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낮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공익 직불금 수령 한계를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책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고 본다. 당면한 정부는 이들 은퇴 세대들이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건,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건, 고향을 찾아 텃밭을 가꾸며 노년을 보내려는 것이니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 실패 사례를 보자. 임차인의 생계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관련 3법은 오히려 임차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주나 임대인들은 임대차 관련 3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임차인에게 법령 시행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될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는 역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는 많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 급등세 속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아도 광풍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진흙을 해야 하는 청년층과 집 없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1970년대까지 소형 아파트를 국민 주택으로 공급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사무실과 우수한 고교 등을 강남으로 이전하면서까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강남 개발의 학습 효과는 그 이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이젠 백악이 무효일 정도가 되어 버렸다.

정부의 귀농·귀어·귀촌 정책이 성공하려면 걸림돌부터 과감히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고, 귀농·귀촌을 망설이는 세대들이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IM선교회발 코로나 '제2의 신천지 사태' 될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광주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 소재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 이어 광산구의 TCS 국제학교에서 그제 하루에만 100여 명의 감염자가 쏟아져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한마음교회가 운영하는 TCS국제학교와 북구 빛내리교회 등이 운영하는 TCS 에이스 국제학교는 대전의 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 외에도 광주에 IM선교회 관련 교육 시설이 남구 티콘TCS국제학교, 서구 트리니티 CAS 등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검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시설이 코로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음에도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이어서 지금까지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은 사·도교육감이 출연금·교육과

장·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가를 받으면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단 한 곳만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 광주에도 30곳 이상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시설들은 선교 관련이거나 일반 대안학교, 학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시설 수나 위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이 자칫하면 신천지나 BTJ열방센터에 이은 새로운 코로나 확산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감안해 방역 당국은 이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할 행 법률은 사·도교육감이 출연금·교육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지역발전 초석 되기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문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유일의 'AI경제자유구역'을 목표로 하며 '광주형 일자리'와 'AI' (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구조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산업 융합직접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에너지·에어 가전·생체 의료 등 대표 산업 분야와 연계해 연구 개발(R&D)과 제품 혁신으로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특별 구역을 지정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제도인데, 광주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민선 7기 1호 공약으로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에는 각종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기업에는 규제 특례 적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7년까지 지 기업 800개를 유치하고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조3000억 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3조2440억 원, 신규 취업 5만70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성장이 둔화하는 자동차 산업과 광산업 등으로 짜인 광주의 산업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주축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디딤돌로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로 도입된 지 18년이 된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무늬만 자유구역'인 곳이 많다. 따라서 광주시는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되 치밀하고 체계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주의 비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 여부는 결국 투자 유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얼마 전 열린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보도 중에서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부통령, 인도계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카말라 해리스의 가족사진이다. 특히 사진 속에서 부통령의 손을 잡고 걷는 흑인 꼬마 숙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리스가 어릴 적 입었던 티코트와 비슷한 옷을 입은 꼬마 숙녀는 여동생의 손녀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그는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인도 출신 이민자 어머니 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도 미국의 비주류인 이민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미국 온라인 비평가 협회 외국어영화상 등 58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으며, 배우 윤여정은 112년 전통의 전미비평가위원회 여우조연상을 받는 등 미국 연기상 20관왕을 달성했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이 뒤이어 미국으로 건너온 할머니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이 영화에는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많이 담겨 있다. 영화 제목 '미나리'에 대해 정 감독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미국으로 온 할머니가 가

정은 미나리 씨앗을 키웠는데 다른 채소보다 훨씬 잘 자라는 모습이 기억에 강렬히 남았다"며 "미나리는 가족 간의 사랑,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자와 관련된 여러 소식을 들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결의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다름'을 인정하는지, 얼마만큼 다양성을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민자 관련 여러 소식을 들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결의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다름'을 인정하는지, 얼마만큼 다양성을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아카데미상 후보 물망에 오르며 /김미은 문화부장mekim@

기고



백동진  
전남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부가 귀농·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각종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호응은 시원치 않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만큼 귀농·귀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일단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귀농·귀촌의 조건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지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 되는 것이지만 운영상 미비점도 있다.

은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직업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대략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때, 농어민으로서 공익 직불금 등의 혜택을 누리려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즉 은퇴자로서 농어촌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다고 할 때, 연금 등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농어민에게 부여하는 공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